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12. 2.(월) 11:00,  
(지면) 2024. 12. 3.(화) 조간

배포 2024. 12. 2.(월) 06:00

## 부유물 감김사고 다발지역, 미리 확인하고 조심!

- 해양수산부, 전국 해상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 제작·배포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선박의 부유물 감김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연안의 ‘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’를 제작하여 12월 2일(월)부터 여객선·어선 등에 제공한다.

부유물 감김사고\*란 바다에 떠다니는 폐어구·폐그물 등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를 말하며, 이로 인한 선박 운항 중단은 물론, 선체 전복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.

\* 최근 5년간 연평균 368건 발생 / 기관손상(연평균 873건)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고

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부유물 감김사고 데이터를 수집·분석하여 6개 권역\*으로 구분한 사고 현황을 그림 형태로 시각화하였다. 이 현황도는 해역별 사고 빈도가 높을수록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선박 운항자가 위험해역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.

\* ①인천-평택, ②대산-군산, ③목포-여수, ④부산-여수, ⑤울산-동해, ⑥제주

해수부는 현황도 2,700부를 여객선과 어선 등에 배포하고, ‘바다내비’ 앱 화면으로도 실시간 정보를 표출할 계획이다. 아울러, 부유물 감김사고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오픈API([mtisopenapi.komsa.or.kr](http://mtisopenapi.komsa.or.kr)) 및 공공데이터포털([www.data.go.kr](http://www.data.go.kr))에도 게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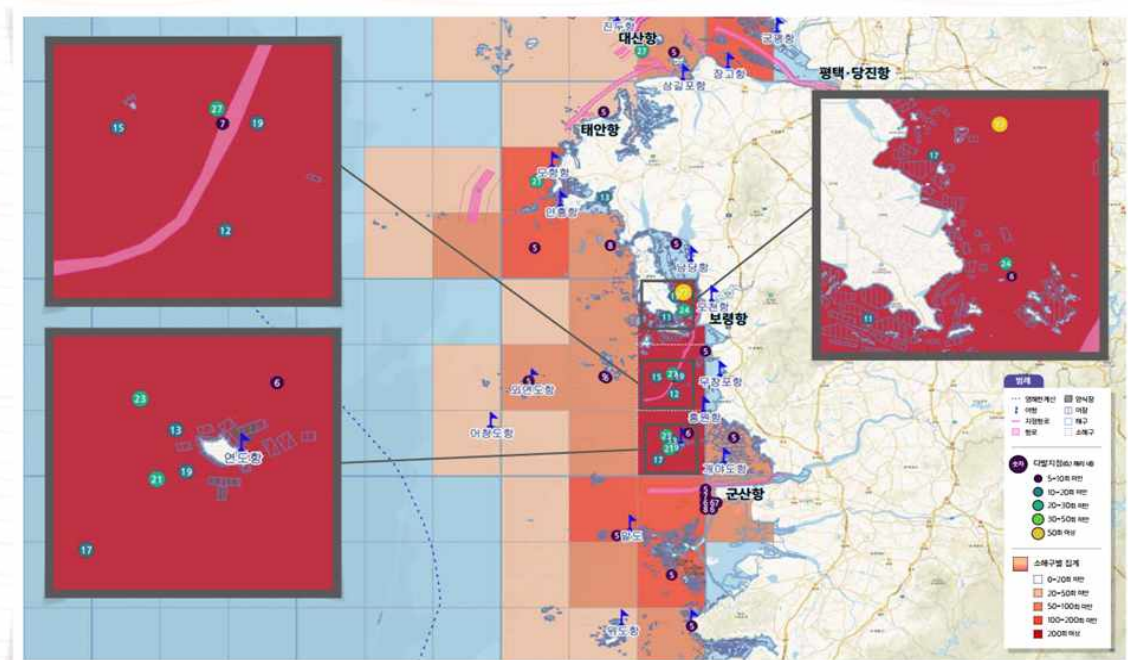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부유물 감김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박 운항 시 ‘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’를 참고하면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해사안전국   | 책임자 | 과 장 | 이민중 (044-200-5850) |
|       | 해사안전관리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승찬 (044-200-5857) |

## 2024년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

## 대산 - 군산

## 2024 부유물 감검사고 현황도



**활용 데이터** (‘19~’23년 부유물감집사고) 중앙해양안전심판원, 해양경찰청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(‘21~’23년 항행장애물) 해양환경공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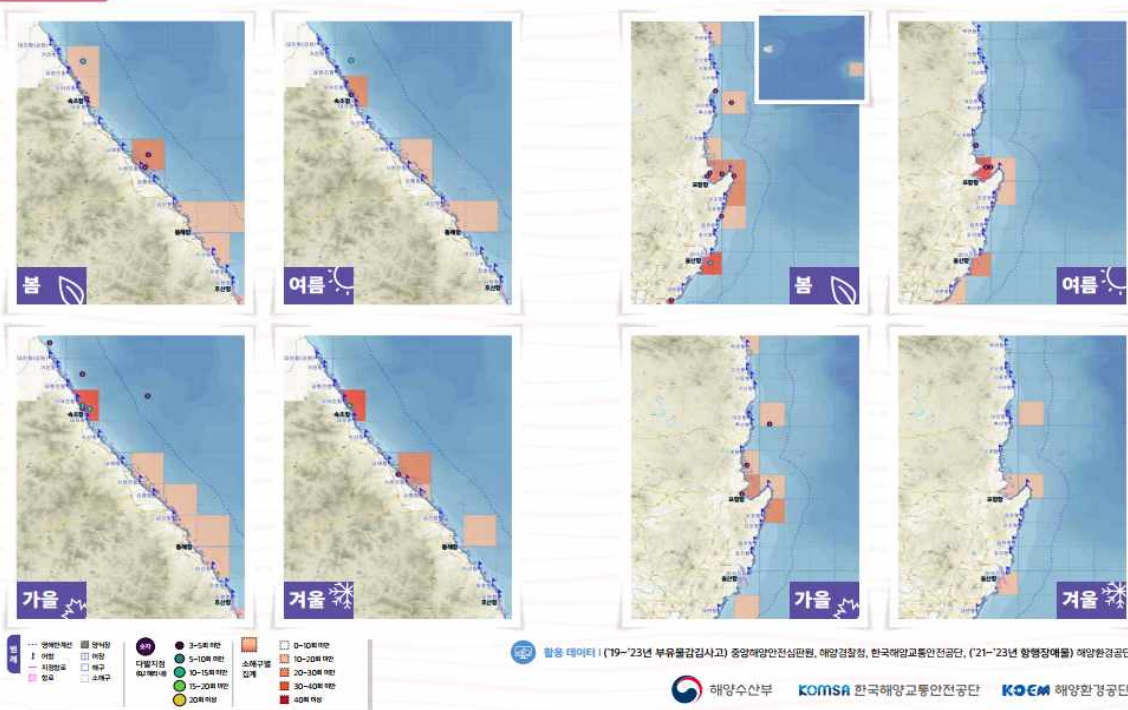
 해양수산부

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
KCEM 해양환경공단

**울산 - 동해**

## 2024 부유물 감김사고 현황도



**활동 데이터** | ('19~'23년 부유물감집사고) 중앙해양안전심판원, 해양경찰청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('21~'23년 항행장애물) 해양환경공단



해양수산부

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

KOEM 해양환경공단